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15. 서머나 교회의 상급

2013. 04. 14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어 오늘은 서머나 교회의 약속하신 상급을 이야기하면 서머나 교회 편지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2:8~11]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10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 시대에 환난과 궁핍과 핍박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폴리갑이라는 훌륭한 사자가 있어서 교회를 굳건하게 진리 위에서 바르게 이끌었는데, 10대 박해 중에 서머나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100년부터 313년까지의 교회들에도 폴리갑 같은 훌륭한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답: 예, 핍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순교자들의 이름들을 말했지요. 그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시대의 사자들이지요. 다 진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는 세상을 이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 버가모 시대로 넘어갑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복한 것 같았는데, 그것을 빌미로 세상이 교회를 정복하게 되 버렸지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교회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속게 되었지요. 이것은 버가모 시대 이야기입니다.

2.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군요. 이제는 서머나 교회에 약속한 상급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야 할 시간입니다.

답: 그럽시다. 이미 읽은 말씀이지만 지남 시간에 설명한 다음 말씀만 먼저 읽도록 합시다.

[계2:10하반,11]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먼저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핍박으로 정말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과 핍박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각박한 느낌이 있지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문장에서 “충성하라”의 “하라”로 번역된 “기누”는 “기노마이”의 현재 중간태 명령형으로 과거의 순교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충성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드러냈던 것처럼 서머나 교인들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극심한 황제 숭배 강요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던 교인들을 향한 단호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배후에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나가는 세상이라는 성경의 기본 사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안락을 누릴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들의 목표와 소망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이 확실한 신앙으로 영원을 위한 삶인 것을 넌지시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세상에서 평안한 중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차라리 죽도록 충성하는 삶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발자국을 따른 것이 합당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지요.)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했지요.(요일2:15~17) 그래서 좀 각박해 보이는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의 진심이 서린 사랑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3.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데, 요즘은 서머나 교회 시대 같지 않으니까, 자기의 영일을 탐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삶을 하는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이 드문 것 같아요. 교인은 많은데 진정한 성도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데요. 이제 마지막 말씀이 상급에 대한 말씀이군요.

답: 예,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에게 주어진 상급으로 보입니다만, 다른 말씀을 보면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는 순교에 이르지 않아도 믿음으로 충성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여겨집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된 것 같네요. 1:12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면류관”이라는 말은 “스테파노스”인데, 이것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진 “승리의 관”을 의미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듯이 온갖 핍박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말이지요. 헬라어에는 면류관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하나는 “디아데마”입니다. 이것은 “왕관”입니다. 계시록에 붉은 용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이나,(계12:3) 계13:1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머리의 면류관은 다 디아데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도 계19:12에만 디아데마입니다. 신약성경에 면류관은 대부분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면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의 면류관인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예수 안에서 늘 생명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씌워주는 면류관이라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 외에도 썩지 않는 면류관(고전9:25), 자랑의 면류관(살전2:19) 의의 면류관'(딤후4:8), 영광의 면류관(벧전5:4) 등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들은 다 예수 안에서 얻은 그 생명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같은 면류관일 것인데,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른 이름으로 말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은 상급의 종류가 이

렇게 여러 가지가 아니겠는가 하는데, 잘 모를 일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랑의 면류관은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두고 한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이 면류관들이 정금 면류관이라고(시21:3) 했는데, 아마 생명의 면류관이 정금관이 아니겠습니까.

4. 그 면류관의 이름 중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이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목사님은요? (저도 그런 것 같네요.)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보증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그렇지요.) 마지막 권고는 역시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보증이 다르지요. 이것도 상급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은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는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계시록에만 네 번 있습니다. 그것은 계2:11과 20:6, 14과 21:8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전제로 하고 성립이 됩니다. 재림이라는 말은 초림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없지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으니 당연히 첫째 사망이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첫째 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사람이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성경의 사상은 그것을 첫째 사망으로 보는 것이지요. 히9:27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여 사람은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정해진 한 번 죽는 그 죽음이 첫째 사망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귀족이나 천민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무도 피하지 못하고 겪어야 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것이 아니지요. 서머나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도록 예수 믿음에 충성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 진짜 사망입니다.

5. 진짜 사망이라고 하시면, 가짜 사망도 있다는 말입니까?

답: 글쎄요, 가짜 사망이라고 하기는 좀 뭣하지만, 사실 지금 죽는 것은 영원한 죽음은 아닙니다. 영면이라는 말을 쓰지만, 성경의 관점은 영면이 아니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의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새 아침이지요. 그리고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은 1천년 후에 부활할 것인데, 그것을 계20:6에는 있습니다. 천년기간 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의인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하였으니, 천년기 후에 있는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거절한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번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나사로가 잔다고 하셨고, 부활에 대하여 말할 때 이미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진짜 사망이 아니고 잠자는 것과 같으니 가짜 사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사망할 수 없는 몸으로 즉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눅20:35,36을 읽어봅시다.

[눅20:35,36]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36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예수님께서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시대에 약속하신 상급입니다. 그들은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제는 다시 죽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은 불 못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을 것인데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계20:13~15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읽어보시지요.

[계20:13~15]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 못에서 소멸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가톨릭이나 일반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영혼이 들어가서 영원히 불타면서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불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망을 사망이 아니라 불속에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해석합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악인이 없어진다고 했거든요. 시37: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이 없어지는데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라고 했지요. 불에 타서 재가 되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때는 사망 자체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영원한 승리이지요. 이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약속처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쓸 것이며, 결코 둘째 사망이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하신 것입니다.

6. 지금 말씀은 영혼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답: 영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강론을 하면 앞으로도 영혼이라는 말을 여러 번 만나게 될 것인데 영혼이라는 말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혼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영혼에 대하여 확실한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성경에 영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개역한글 성경에 약 183회나 나타납니다. 구약에 154회 신약에 29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문제는 그 영혼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네페쉬를 주로 영혼이라고 번역했고 헬라어 푸쉬케를 영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네페쉬는 사람이라고도 번역되었고, 심지어는 시체라고도 번역되었습니다. 민수기 9:6,7에 시체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네페쉬입니다. 그러니까 네페쉬는 평범하게 사람을 뜻하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창2:7에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고 한 말이 “네페쉬 하야”입니다. “하야”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하야”가 빠진 네페쉬는 시체입니다. 요즘 번역은 생령이라는 말을 생명체, 또는 살아 활동하는 존재 등으로 번역합니다. 창2:7이 영혼이라는 표현의 시작이지요. 똑 같은 네페쉬 하야가 창1:21과 24절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모두 생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유독 사람을 네페쉬 하야라고 한 것만 생령이라고 번역하고 요즘은 생명

체라고 번역해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똑 같은 네페쉬 하야를 사람에 대한 것과 동물에 대한 것을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존귀하게 생각하여 동물과 차별화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살아서 활동한다는 차원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하야, 즉 생명이 떠나가면 다 네페쉬만 남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영혼, 혼, 또는 영이라고 번역된 원문을 다 찾아 살피자면 시간이 모자라지요. 원리를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는다는 것은 산 사람이 죽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에스겔 18:4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겔 13:19을 읽어보세요.

[겔13:19]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인다고 했지요. 또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고 했지요. 이것은 죽이지 말아야할 의인들을 죽이고 살리자 말아야할 악인들을 살린다는 말입니다. 또 영혼을 죽일 때에 피를 흘려 죽인다고 했습니다. 겔22:27을 봅시다.

[겔22:27]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영혼은 죽을 때에 피를 흘린다는 말씀이지요. 이만큼만 말해도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떠나서 단독으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 있는 생명적 개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7.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 그런 것 같은데, 신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나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영혼이 몸을 떠나서 따로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답: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서 낙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대하여 자세히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질문을 했으니, 삽자가상의 강도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짚고 갑시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지요. 눅23:43입니다.

[눅23: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질문하신 문제의 핵심이지요?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날 강도의 영혼과 함께 낙원에 가셨다는 말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바로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셨다는 생각이지요?(그렇지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마12:40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12:40]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께서도 사흘을 땅 속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요나의 영혼은 낙원에 갔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동안 땅 속에 계셨는데 어떻게 그날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갈수 있었겠습니까. 그 말씀은 그날 그 강도에게 끝 날에 예수께서 강도를 낙원에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원문도 그렇게 읽으면 되는데, 문제는 영혼불멸을 믿는 번역자들이 그들 생각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은 "아멘 레고 소이 세메론 멭 에무 에세 엔 토 파라데이소"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씩 풀면 "진실로 내가 말한다. 너에게 오늘 함께 네가 있을 것이다. 에 그 낙원" 원문에 구두점을 찍잖아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 성경은 요즘처럼 띄어쓰기도 없고 구두점도 없었고 모두 대문자로 붙여서 썼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책들도 그랬습니다. 훗날에 구두점을 붙였지요. 위의 말에 요즘 헬라어 성경을 보면 구두점이 소이(너에게) 다음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번역처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가 됩니다. 그러나 구두점을 세메론(오늘) 다음에 붙이면 "진실로 오늘 너에게 말한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이 됩니다. 마12:40과 관련하여 어느 것이 성경적입니까? 당연히 세메론 다음에 구두점을 붙이는 것이 옳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날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낙원에 있게 해주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당연히 부활해서 낙원에 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혼은 불멸이라고 하는 전통과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지금 불 못에서 결코 죽을 수 없이 고생하는 영혼이 있다는 교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세상 끝에 있을 일이라고 벌써 에베소 교회 편지를 설명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 악인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영원히 상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되지 않았던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영생의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산 자의 하나님과 산 자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영생의 생명을 얻도록 이끄신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8.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답: 예, 아마 마10:28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생각하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자세히 읽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영혼불멸을 믿고 이 말씀을 읽으니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라고 했으니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예, 그렇지요.) 목사님, 자세히 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다고 했지요. 영혼이 멸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 아니잖습니까.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를 영원히 멸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때는 사망과 음부도 함께 불 못에서 소멸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최후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고전 15:26) 계20:14에 사망과 음부도 불 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사망도 불타서 없어지고, 음부도 불타서 없어지고, 모든 예수님을 거절한 영혼, 둘째 부활한 사람들도 다 불타서 재가 되어 원래 없던 것처럼 살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 낙원에서 산 자의 하나

님과 산 자이신 예수님과 살게 하신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이것을 상급으로 약속하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쓸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거기 참여해야 하겠지요?

9.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시대에 엄청난 핍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교회의 사자들과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우리도 바른 믿음으로 축도록 충성하는 생활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낙원에서 주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복을 누리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